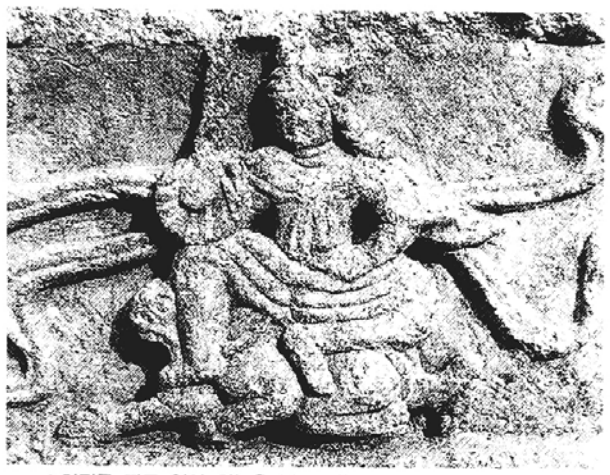


◇악귀를 깔고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팔부신중의 모습이 새겨진 유물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원 실상사 백장암에서 발견됐다.

실상사 백장암 석탑 기단부서 앉은 팔부신중 첫 발견

생령좌 형태갖춘 통일신라 조각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악귀를 깔고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인 생령좌(生靈座) 형태의 팔부신중상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팔부신중상은 전북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 백장암의 삼층석탑 기단부에서 출토됐다. 머리에 모발을 늘어뜨린 팔부신중상은 눈, 눈썹, 입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있는 등 보존상태가 뛰어나 통일신라시대 선조들의 빼어난 조각술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령좌 형태의 팔부신중상 6점이 한꺼번에 출토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팔부신중상들은 모두 서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팔부신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四天王)의 수하 8명을 뜻한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문화재 발굴팀(팀장 최완규)은 "7월부터 실시된 백장암 유적지 발굴조사 결과 국보 제10호인 삼층석탑 기단부 지하 50cm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생령좌 형태의 팔부신중상 6점을 발견했다"며 "백장암 삼층석탑의 복원작업과 그 당시 불교사상 및 전래과정 등을 고증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때 건립된 백장암은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에 위치한 실상사의 부속암자로 국보 제10호 삼층석탑과 보물 제40호 석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팔부신중상은 모두 서있는 형태였다.

강지연 기자
(jygnag@buddhapia.com)

불심시심 〈152〉

집에 무가의 보배 있다

此身頓頓學爬涉 (차신돈돈학파섭) 이 몸 세상 기어 다니는 것이나 배워
寄在鬧浮若女蘿 (기재염부약녀라) 염부제에 붙어 살기 담쟁이 넝쿨 같다
採藥兒常斜日至 (채약아상사일지) 약을 캐는 아이 항상 해질녘에 돌아오고
辦齋僧與澹雲過 (관재승여담운과) 재 올리는 스님은 담담히 구름과 지나가다
山花不見知春盡 (산화불견지춘진) 꽃도 보이지 않으니 봄 간 줄 알고
澗水逾鳴覺雨多 (간수유명각우다) 시냇물 더욱 울리니 비 온 것 깨닫다
家有壘然無價玉 (가유형연무가옥) 집에서 훤히 밝은 가없는 옥돌 있으니
不須他石强消磨 (불수타석강소마) 타산의 돌 빌어 다듬을 이유 없다.

혜즙대사의 시이다. '석옥화상의 한거운에 차운한다(謹次石屋和尙閑居韻)'는 시 7수 중의 셋째 수이다. 석옥화상은 고려 말에 원나라 스님으로 우리 고승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친 분이다. 한거라는 한가로움을 주제로 하여 산사의 조용한 경관을 노래하였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 겸손히 여겨 기생하는 담쟁이 정도로 표현하였으니 다음에 이어질 말도 그저 담담한 일상일 것이다.

산사의 하루 약을 캐러 간 아이의 해저녁의 귀가가 하루해의 마침을 알린다. 재를 올리려 약간은 소란하기도 하였던 스님들의 그림자도 구름과 함께 지나가고 말았다. 이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담담한 정경이다. 이러한 하루하루는 계절의 변화도 특별히 느낄 것이 없다. 꽃이 피면 봄이요 꽃이 없으면 봄이 간 것이다. 아울러 시냇물 소리의 변화가 일기의 청음을 이해하게 한다. 물소리가 거세졌으니 비가 온 것이고, 물 소리 잦았으니 날씨가 묻은 것이다. 계절 변화마저 감각 밖으로 내몰아 버린 스님의 정적이다.

집 안에 좋은 보배가 있어 훤하게 밝히고 있다. 보배란 원래 값의 높낮이로 그 귀함을 잴 것이로되, 나의 보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귀하다 천하다는 것은 세속에서 따지는 일이지, 산사에는 이 귀천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보배이다. 다시 여기에다 더 무슨 값을 따질 것인가. 옥돌이라면 다듬어야 값이 높고 이 옥돌을 다듬으려면 타산에서 나는 돌을 가져와야 하겠지만, 나의 보옥은 원래가 세속의 기준이 아니었으니, 다시 더 다듬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다듬을 수 없는 보배 이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일당스님 판화 '부동명왕'.

일당스님 희수전

10일까지 대구 맥향화랑

〈라훌라의 사모곡〉이란 책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린 일당스님(속명 김태신). 일엽스님의 속가 아들로 더 잘 알려진 일당스님(직지사 중암)이 77세를 맞아 10일까지 대구 맥향화랑(053-421-2006)에서 희수전을 갖는다. 작품은 모두 20여점. 설악산 주왕산 등 명산의 사계를 특유의 석채화에 담았다. 첩첩산들과 골짜기를 흐르는 물, 하늘 등 대자연의 풍광을 단순하면서도 웅장하게 묘사하며 청록색과 홍색, 황색 등 강렬한 색채를 세련되게 구사, 채색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특별히 선보이는 '모자 관음보살'은 아기를 한팔에 안고 젖을 먹이는 보살과 아기의 편안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자비와 자애로움을 상징한 것으로 지난 75년 일당스님의 한국에서의 첫 귀국전때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작품. 또 '반가사유상'과 '부동명왕' 등도 판화로 선보인다.

"일심일념으로 작품에 임하는 자세야말로 참선이고 수행"이라 말하는 일당스님은 내년 가을 베를린과 헝가리에서의 초대전도 준비하고 있으며 곧 금강산도 화폭에 담아올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화제의 전시

티벳·몽골불교미술 특별전

내년 2월14일까지 광주서 대원사 현장스님 수집품 전시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티벳불교미술 특별전'을 내년 2월 14일까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5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만다라나 티벳 사진전이 일부 열린 적은 있으나 탱화 불상 불경 만다라 및 밀교의식에 쓰이는 각종 법구류 등 티벳의 불교미술품을 한자리에서 대거 볼 수 있는 전시회는 처음 열리는 것. 전시회 작품들은 탕카라 불리는 티벳과 몽골 불화와 만다라 150여점, 불경목판과 전적류 30여점, 민속 공예품 30여점, 인도고대불상 및 세밀화 30여점 등 총 5백여점. 특히 섬세한 공예제작으로 유명한 석가족 후예가 만든 불상, 한지위에 옻칠하고 그위에 금으로 글씨를 쓴 불경,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모불,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공양그릇 까발리 등은 세계불교문화사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 현장스님이 87년부터 10년여간 티벳을 드나들며 모은 미술품들.

◇길상천녀를 그린 탕카.

현장스님은 "티벳의 찬란한 불교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동양문화를 교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면서 "티벳미술 상설 전시장도 만들 계획"을 밝혔다. 현장스님은 이번 전시회 작품들 사진과 티벳불교에 관한 글을 모은 〈티벳, 예술과 자연〉도 펴냈다.

이호신씨 '생태기행전'

15일까지 아트스페이스-학고재 두곳서 산문집 '숲을 그리는 마음'도 펴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답사하여 작품을 발표해온 한국화가 이호신씨가 우리 자연유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생태그림전을 15일까지 소격동 아트스페이스 서울(02-720-1524)과 관훈동 학고재(02-739-4937)에서 동시에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생사의 노래' '인동(忍冬)' '결실' '가을노래' '희망의 빛' 등 대작과 소품 80여점이 선보인다. 우리의 산과 골, 나무와 온갖 종류의 토종꽃, 새, 곤충 등 사계절에 따른 산하와 이에 어울려 사는 생물의 조화로운 삶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이다.

5년여 동안 생태기행팀을 따라 다니며 관찰과 사생을 해온 이호신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도 그 한 부분인 생태계가 연기와 상의상관이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호신씨는 전시에 맞춰 60여컷의 삽화와 90여컷의 그림, 그리고 사계절로 나누어 쓴 글을 모아 〈숲을 그리는 마음〉 산문집도 펴 냈다.

"산과 들, 늪과 갯벌 등의 그림으로 세기말 우리 자연환경이 처한 상황을 미력하나마 증언해보려 했다"는 이호신씨의 그림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며 더불어 살아야 할 자연유산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진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이호신作 '생사(生死)의 노래'.

공화랑 개관기념 '고미술 정수전'

단원의 '등호선인' 등 105점 전시

인사동 고미술화랑가를 대표하던 공창화랑이 공화랑(대표 공창호)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관기념전으로 '고미술 정수전'을 마련했다.

15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그림·글씨·도자기·공예품 등 총 105점이 전시되는데 이 가운데 북한 개성 근교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고려 후기 널꾸미개(목관장식)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청동과 나무 조각으로 구성된 널꾸미개는 모두 11점으로 네모난 청동판에 금가루로 청룡과 비천상 호랑이 등을 새겨넣은 '동제금화관장식방형판(銅製金畵棺裝飾方形板)' 등 상판장식 9점과 홍송을 깎아 만든 '목각천인비천상(木刻天人飛天像)' 2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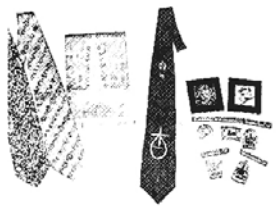
이밖에 단원 김홍도가 돗자리를 선물받은 답례로 소암스님에게 그려준 '등호선인', 겸재 정선이 소월사의 밤에 매료되어 그렸다는 추숙소월도, 고려시대 제작된 작자미상의 '나한도' 등이 전시된다.

강지연 기자

지방박물관들 문화유산 소재 상품개발 활발

귀면와를 소재로 한 티셔츠, 비천상을 그려넣은 넥타이, '신라의 얼굴' 수막새가 들어간 책갈피… 경주, 공주 박물관 등 지방박물관들이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캐릭터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방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신라유물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한 데 이어 공주박물관도 백제유물을 소재로 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12월 20일까지 박물관내에서 전시중이다.

경주박물관이 만든 것은 안압지출토 귀면와를 인쇄한 티셔츠 2종, 기마인물도, 비천상을 그려넣은 넥타이8종, 천마도를 소재로 한 장식용 타일과 '신라의 미소'로 일컬어지는 수막새가 들어간 책갈피 등. 공주박물관은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석수(石獸)와 금관장식, 금동제신발 등의 모조품을 비롯 넥타이 가방, 명함꽂이, 필통 보석함 등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 부여 등 다른 곳의 지방 박물관에서도 문화상품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주 박물관에서 내놓은 문화유산소재 상품들.

이윤호 기자

저희 주식회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신 많은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자 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요.
일년후 만 이천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시고, 심적으로 위안을 주신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투자해 주신 유치금액은 363분 19,000,000원으로 IMF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 IMF초기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건설사 및 설비업체의 연쇄부도로 당사가 입은 피해액 5억원은 이미 변제를 마친상태이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막은상태에서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사발행 어음 가운데 약 3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으로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 이었으며 올 3/4분기까지 매출액도 IMF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1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이고 연간계약으로 이집트에서 $1,250,000어치를 계약하였으며, 남미의 도미니카, 중동의 이스라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약 $500,000 정도의 L/C가 내도 예정이어서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심 노력하여 건실한 불자기업으로 키울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 발전과 불법중흥의 밑거름으로 최선을 다할것을 불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 변제에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이남제외 직원일동

투자자명단(총363명)

(재)신학원	김공임	김유희	두계권	배경희	신권종	윤인숙	이인길	임명덕	정희수	최경락	
강병주	김광훈	김윤문	명길재	배영숙	신희심	윤정언	이인한	임순규	정해수	최기순	
강성춘	김귀순	김운성	명법사	배종수	실목사	윤정학	이재선	임순류	정해진	최길숙	
강순덕	김규천	김혼희	무이	배종옥	심성엽	윤혜애	이재숙	임옥빈	정현애	최성숙	
김연미	김금홍	김인규	무주상	배필수	심유희	융화선원	이재순	임옥희	제인스님	최성연	
강영운	김기중	김인란	문대식	백상현	인릭행	이기지	이재영	임완숙	조규동	최순자	
강은주	김갑순	김정복	문옥남	백왕웅화사	인증순	이경근	이재옥	임우택	조명숙	최영희	
강인자	김길자	김정봉	문유미	백영보	악사사	이강숙	이재옥	임화순	조명숙	최인영	
강중구	김덕화	김정숙	민경원	보륜사	양기열	이경애	이점심	장경심	조명식	최임자	
강중혁	김두경	김정예	민후임	보천사	양승욱	이경자	이정숙	장명민	조선옥	최정숙	
고명옥	김명순	김정옥	박갑윤	북평사	양재섭	이경희	이정순	장문지	조연숙	태인사	
고순진	김미경	김정호	박건석	서승희	엽화섭	이군지	이정우	장영천	조은경	하병식	
곽종국	김미명	김정훈	박동원	서영석	여영주	이기남	이종관	장정태	조은정	한경규	
관선스님	김미숙	김주덕	박득채	서운석	역곡보고	이기형	이종순	장점해	조인걸	한경호	
관음사(포항)	김민옥	김주석	박미혜	서윤석	역곡표교우	이덕기	이종옥	장주희	조정현	한마음선원	
관음사학인	김병곤	김주자	박분두	서은희	연명순	이동훈	이종태	장태영	조지원보사	한영자	
구본림	김보희화	김주형	박심원	서태은	염명호	이동희	이종현	전심섭	조호용	해인사학수림	
구영미	김봉희	김주성	박순자	석동현	영광도사	이두진	이진구	전승철	주간불교	혜주	
구영미	김분남	김주훈	박순자	성정	영명사	이민승	이진우	전이준	지산스님	혜경옥	
구영자	김심순	김지숙	박승운	성기훈	영월스님	이명숙	이철은	정강주	지원화	혜덕님	
구자원	김상판	김진섭	박시영	성묵스님	영전사한	이복희	이창도	정경순	지은혜	혜상수	
권기선	김수경	김청수	박언조	성역수림	오광수	이봄운	이태원	정계정	지일스님	혜신자	
권영순	김수연	김춘연	박영수	성향선	오세진	이분사	이택우	정기영	지현스님	혜종범	
권영웅	김숙자	김태윤	박영숙	손경자	오양자	이분아	이현숙	정덕근	지현자	혜국스님	
권영하	김순복	김현진	박영원	손순호	오혜숙	이석정	이현호	정동숙	진광스님	홍의희	
권재술	김순희	김호성	박임순	송범스님	오혜주	이순문	이혜경	정수창	진남곤	화암사	
권희선	김앙수	나숙희	박정만	수종	우신지	이순자	이혜정	정원측스님	채봉수	황풍환	
금성사(부산)	김영순	남규홍	박주명	수능엄사	울신정토	이승원	이희이	정원희	챔피온	황선자	
기장사	김영주	내원사서원	박현동	신규갑	원태권	이승철	이효숙	정인섭	천경남	황윤걸	
김선	김영환	노건성	박현동	신동준	유명숙	이영미	이효순	정인순	천만자	황정목	
김김웅	김옥순	노재성	박희철	신성옥	윤명옥	이영숙	인암스님	정일여	천성봉	황창영	
김강웅	김옥희	노혜남	방남순	신우현	윤명희	이완규	인윤기	정종문	청룡사	홍윤사	
김경자	김위수	노희옥	방동원	신장옥	윤봉임	이원형	임강분	정태호	청호스님	홍원사	

참여하실 방법

1. 하기 당사 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2.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3. 투자모금액수 5억원
4. 투자한도:1인당 1만원이상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07640-717
예금주:(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 사: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TEL:(02)215-0723/FAX (02)246-8503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TEL:(0561)772-0729/FAX:(0561)772-3923